| 산업통상자원부 | **보도참고자료** | http://www.motie.go.kr |
|---|---|---|

4.6.(금) 16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배포일시 | 2018. 4. 6.(금) | 담당부서 |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박종원 과장(044-203-4320) | 담 당 자 | 임채욱 서기관(044-203-4327)<br>박현호 사무관(044-203-4329) |

# “백운규 장관, 한국GM 부평공장 전격 방문”
## - 노사 모두 상생하는 협상 노력 주문 -

□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6일(금) 15시 30분 **한국지엠(GM) 부평공장을 전격 방문**하여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등을 만나, 원만한 **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당부**했다.

○ 이번 방문은 한국의 주요한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 지엠의 경영 정상화가 국민적인 관심사인 상황에서 최**근의 노사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 장관이 결단**으로 이루어졌다.

□ 백 장관은 카허 카젬 한국 지엠사장을 만나 **한국지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측에게 보다 진정성 있는 경영 정상화 노력과 함께 노조에 대한 성의 있는 설득 노력도 해달라**고 당부했다.

○ 특히, 최근 한국지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, **사측이 신차배정을 포함하여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경영정상화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**고 강조했다.

○ 아울러, 최근 한국지엠 문제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**한국지엠 부품협력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** 한다며, 한국지엠의 가장 우수한 기반 중 하나인 **부품협력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**고 당부했다.

□ 또한, 백 장관은 **노조와도 만나서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노사협상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**했다.

○ 정부도 노조의 목소리를 잘 일고 있다며, 노사간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한국지엠의 중장기적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.

□ 한편, 백 장관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지연에 따른 **협력업체의 경영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**하면서, 정부차원에서는 **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**하겠다고 설명했다.

□ 백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지엠 노사간 자율 협상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, 필요한 경우 **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수행**하며 한국지엠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**주도적인 역할을 수행**할 것이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박현호 사무관(☎ 044-203-43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 고** **장관 모두 말씀**

□ 정부와 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,

○ **노사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움**

□ 노사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, GM 경영정상화는 물론 **수많은 협력업체의 피해**까지 우려됨

○ **시간은 결코 勞측도, 社측의 편도 아니며**, 협상이 지체될수록 노·사, 협력사 등 **이해관계자 모두가 어려운 국면**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

□ 노조를 설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**사측의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함**

○ 특히, **어제 오늘과 같은 노사간 대립이 다시 재발**할 경우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정부도 지원의 여지가 줄어듦

□ 사측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**적극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**드림

○ **노사간 조속한 합의안 도출**이 GM 경영 정상화에 대한 **공감대**와 **지지를 확보**할 수 있는 **유일한 길**이며 **구체적인 정부의 지원 방안도 논의**가 **가능**하다고 생각함